

# 혁신 역량 모아 세계적 핵연료 기술 선도 회사로

한전원자력연료(주)

**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보면, 사회적으로 혁신의 물결을 타고 변화의 파고가 높았던 한 해였다.

## 2005년의 성과

우리 회사도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이루었다.

경수로 핵연료 320톤, 중수로 핵연료 412톤 생산 목표를 100% 달성하여 국내 가동중인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차질 없이 핵연료를 공급하여 안정적 전력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고품질의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세라믹 설비 증설을 위한 기기 구매 계약 및 시설 설계를 마쳤으며, 기술 개발을 완료한 PLUS7을 2006년도부터 양산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 자격 인증을 마치고 생산 준비를 완료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수출 선도형 고성능 핵연료 개발 과제가 국가 전략 과제로 선정되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 과제의 수행을 통해 2010년까지 기술 소유권이 확보된 글로벌 TOP3 수준의 수출 선도형 고성능 고유 핵연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2008년 공급 예정인 ACE7의 LTA의 노내 연소 실험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 부품의 국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Gd 소결체 국산화 시설의 건설을 마치고 공정 자격 인증을 마쳤으며, 지르칼로이 합금 튜브 공장을 착공하였다.

2015년 핵연료 성형 가공 분야

세계 top 3를 향한 「Green Vision 2015」를 발진하였으며, 수입원 다원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 설명회 방법을 다원화하여 고객에게 우리의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혁신 및

윤리 경영에도 진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사 청렴도가 2004년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졌으며, 고객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다.

또한 5년 연속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무재해 10배를 달성하여 산업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언론사로부터 각종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회사를 이룩하기 위해 새해에는 다음의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핵연료의 경제적·안정적  
공급 기반의 구축**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임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세라믹 설비 증설 공사를 공기에 맞추어 추진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수요에 맞추어 공급력을 갖출 것이다.

부품 국산화를 완성하기 위한 Gd 소결체 국산화를 연내에 마무리하며, 지난해 말 착공한 지르코늄 합금 공장의 건설도 공기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레이저 용접기 증설 등 기존 시설 개선과 보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



한전원자력연료(주)는 품질 경영에 주력한 결과 2001년부터 5년 연속 산자부 선정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량 핵연료인 PLUS7의 양산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ACE7의 양산 준비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 가속화**

둘째,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5년 우리 회사가 세계 top 3에 들기 위하여 원천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출범한 「Green Vision 2015」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고유 기술 확보를 위하여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며, 30여 년간 축적된 국내 산·학·연의 기술력을 총결집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차세대 수출 선도형 핵연료 집합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제조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그 동안 축적한 우리 기술력의 보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도록 지식 정보의 공유 체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우리 회사가 사업에 참여할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중인 SMART 원자로, GEN 4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현황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의 다각화**

우리 회사는 현재 우리 회사 수입의 90% 이상을 국내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 제조 역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회사 외연의 확장을 위하여 현재 웨스팅하우스사와 추진중인 CE형

제어봉 합작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개량형 노심 감시 및 운전 지원 시스템인 BEACON을 적극 홍보하여 판매의 기본을 다짐으로써 새로운 수익의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한정되어 있는 핵연료 서비스 기술 능력을 해외에 알려 우리 기술이 수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술 개발중인 연료봉 물때 제거 기술을 연내에 완성하여 국내외 발전소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현재 수출 중인 핵연료 부품 수출국 대상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물량도 늘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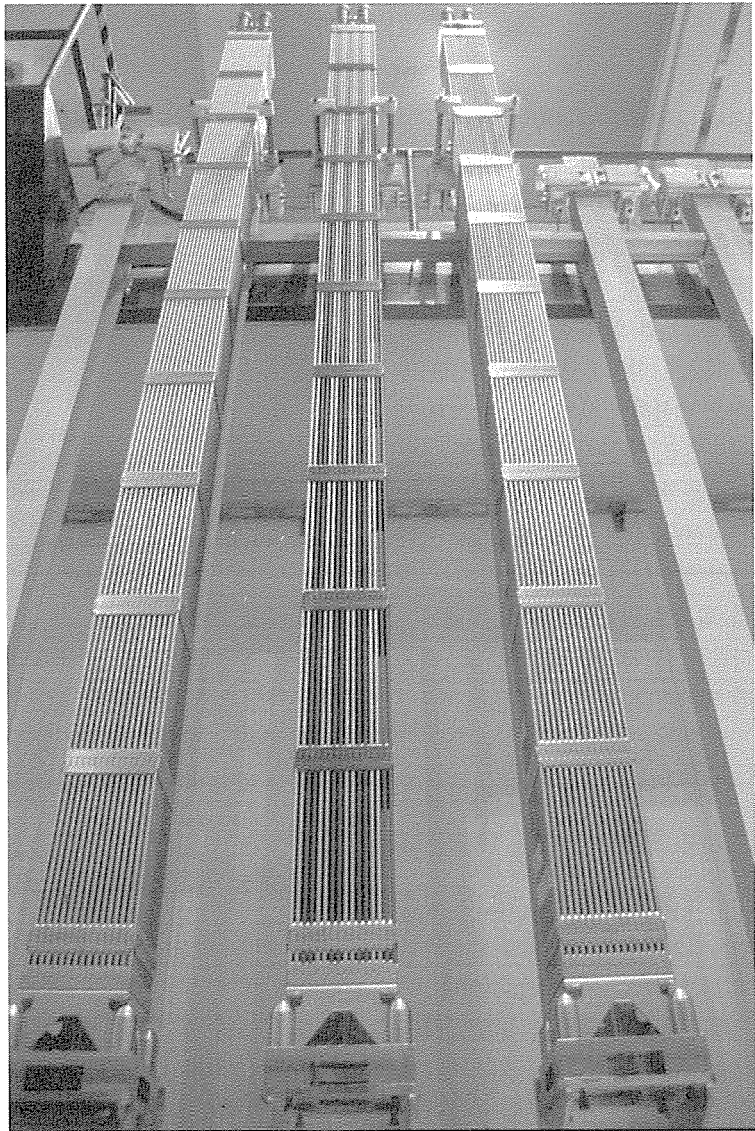
**인재 양성과 경영 혁신,  
윤리 경영 지속적 추진**

중차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주체는 인재이다.

보다 우수한 인재를 뽑고, 확보된 인재의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인재를 키워나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이 붙은 혁신의 불꽃이 정착하여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 경영을 추진하며, 반부패 문화의 정착을 위한 윤리 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나눔의 문화도 더욱 활성화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는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한정되어 있는 핵연료 서비스 기술 능력을 해외에 알려 우리 기술이 수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술 개발중인 연료봉 물때 제거 기술을 연내에 완성하여 국내외 발전소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회사는 올 한해도 마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갈

아 끼우고 노사가 화합하여 세계 핵연료 기술을 선도하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손잡고 노력할 것이다. ☎